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학교수·미술평론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9년 하반기 전시기획 공모를 통해 전시기획자들에게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이 운영하는 산지천갤러리 2개 층에 자리한 4개의 전시실이 지원되고 예산 2000만원이 주어진다. 공모의 내용은 '산지천 인근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이며 세미나 등 방문객을 위한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2회를 맞는 이번 전시기획 공모사업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작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시기획 공모사업 심사평

중심의 예술가들에 국한하지 않고 전시기획자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신청 자격도 2회 이상 전시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도 제주 미술인들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기획자로 열어 놓았다. 이번 전시기획 공모에는 총 11건이 접수됐으며 다양한 주제의 기획안들이 심사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신청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획자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충남, 전북 등지에 소재를 둔 개인 및 단체가 응모에 참가했다. 참여 작가의 작품은 회화를 포함해 설치와 영상 그리고 융복합형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기획안의 주제 역시 제주의 무속에서 신화와 생태 등을 산지천의 역사와 연계시킨 다양한 분야가 제시돼 주최 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정한 사

업 목적에 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은 재단이 정한 계획의 적합성이나 실행의 수월성 그리고 성취도의 예측 등이 기본으로 제시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산지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전시 주제인가에 주요점을 우선 두었다. 이와 더불어 동시대성과 실험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을 참여시키고 있는지, 전시디자인은 갤러리 전시공간에 잘 어울리게 설계됐는지를 따져 보았다. 심사방식은 사업계획서 검토와 개별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이를 모두 마친 후 토론 없이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심사위원 4인이 각각 2인씩을 추천해 최고 점수를 얻은 기획안을 선정했다. 심사 총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심사결과 김혜영의 '낮을 있는 달'을 선정했다. 선정작 '낮을 있는 달'은 밤과 낮의 시공간을 잇는 낮달의 특성을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에 빚어 전시로 풀어내려는 기획안이다. 산지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낮달에 비유해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역 공간의 의미를 연결하고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였고, 전시주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설치적 경향의 작가와 작품들을 선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산지천 공간의 역사를 잘 알고 이에 대한 조형적 해석을 시도하는 제주 작가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협업한다면 좀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뮤지엄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의 하나가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 해석'에 관한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시기획 공모사업은 이러한 당대의 이슈를 수렴하는 사업으로 발전 지속되기 바란다.

열린마당

화북 유배문화 행사를 보며



김형주 제주시 화북1동

즐거움 듯, 흐느끼 듯 밀려들어 오는 파도. 그 옛날 오랏줄에 묶인채 유배지 포구로 오가는 사람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어 이 곳 화북포구로 왔는지 그 곳에서 묵묵히 지켜본 포구는 알리라. 고려 초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200여명의 유배인이 화북포구를 통해서 제주에 유배 됐다. 기록을 보면 1907년 9월 대한제국의 궁내부 대신이었던 박영효가 한일합방에 반대해 고종의 국새를 숨겼다 하여 친일파 이완용에 의해 정치상 불온한 인물이라는 보안법을 적용받아 제주도에 일년간 유배된 것이 역사적 마지막 기록인 것 같다. 고려 말 관공군에 항거해 김통정

장군이 애월 고성에 진을 쳤고, 삼별초 난국을 평정하기 위해 관군 사령인 김방경이 애월포와 화북포로 양면상륙작전을 펼쳐서 이 난을 평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초에 영리한 세종에게 미련 없이 왕관을 넘겨준 양녕대군이며 인조반정에 폭군 광해군이 유배돼 죽어서 돌아간 화북포구. 이들이 제주에 깨우친 삶과 문화가 유배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유배인들이 남기고 간 고귀한 것을 찾아서 그들의 낮을 기리고 더 아름다운 제주를 빛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제주의 문화가 이 곳 화북포구에서 싹이 텄다고 해도 과도한 이야기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누가, 왜 이 곳에 오게 됐는지 현판을 제작해 지나는 관광객들이 쉬터에 앉아 쉬면서 화북포구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세워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화북 유배문화 행사는 너무나 좋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충실히 보완해 내년에도 알찬 유배문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시장직선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양 시장, 의원 역할론 강조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종태의원이 "행정시장 경험자로서 한계를 대통령, 장관에게 표시해달라"고 하자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국회의원 역할론을 강조.

문 의원은 "시장직선제를 행안부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국정감사에선 장관이 긍정 시그널을 보냈다"며 양 시장의 입장을 질문.

양 시장은 "시장직선제 필요성은 수 차례 밝혀왔다"며 "강창일의원의 직선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제주 국회의원 2명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의원이 나서줘야 한다"고 답변. 문미숙기자

문제제단 부서장 보직 해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성희롱 고충처리건과 관련 내부에서 인사담당부서의 업무 방만과 부적절한 계약에 대해 보직 해임.

지난 18일자로 이루어진 보직

해임 대상은 경영기획본부장과 경영지원팀장으로 경영기획본부장에는 전문위원을 인사 발령. 제주문제제단 관계자는 "고충처리건을 둘러싼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했다"며 "새로 온 경영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습대책을 포함한 조직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진선희기자

최근 뮤지엄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의 하나가 '지역공동체와 문화유산 해석'에 관한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시기획 공모사업은 이러한 당대의 이슈를 수렴하는 사업으로 발전 지속되기 바란다.

아이 고민 들어주세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년 말이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상담을 강화하도록 안내.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발견 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성적 비관 등의 고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해줘야 한다"며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 김지은기자

사설

4·3특별법 처리 노력 의심받는 제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제주도가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당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 4·3특별법 심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봤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

주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설득 노력에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제주도의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처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중순에 발의됐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4·3특별법 개정이 물건너 갈 우려마저 높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공공기관 광고 대행수수료 아예 폐지하라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광고 수수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도박도박 떼가니 하는 얘깁니다. 결국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지난 17일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 부터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로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은 서울 소재 전국신문 449억원, 지역신문 318억원, 방송

매체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이었으나 지역지는 104억원(3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지역언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역언론사의 경우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서 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언론재단이 광고 수수료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으로 10%씩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언론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가세(10%)에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10%)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신문협회와 대한민국의방신문협회의에서도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인화가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합니다.

부고
현영택(서귀포농협 조합장) 아버지
연주현공 성권(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3일(수)
▶발인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소
▶장 차: 서흥동 가족묘지
아 들 현영택
며느리 김명선
※ 연락처 : 현영택 010-7251-0114
김명선 010-3060-8511

부고
김형준(제주테크노파크 근무)
아버지 광산김공 성대(前 중등교사·
향년 75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8일 오후 7시 2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1일(월)
▶발인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장 차: 신례리 공동묘지
부 인 김경희
아 들 김형준
며느리 양지은
※ 연락처 : 김형준 010-4757-3646
김영대 010-5712-2032

부고
박인택 어머니 남평문씨 옥선
(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9일 14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1일(월)
▶발인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아흔아홉골 선영
아 들 박경택(敬) 며느리 고재숙
인택 강애숙
지택 강수열
주택 허복숙
딸 박봉심
육련
손 자 박성기 손 녀 박영숙
성민 소현
성희 미화
성환 미란
경희
※ 연락처 : 박인택 010-2698-3081
박지택 010-3691-3376
박주택 010-4692-0624
박성기 010-9840-568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명홍
(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아 들 고택진 며느리 김미경
딸 고연숙
정유 사 위 김승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부이공 세환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아 들 이승택
승현
며느리 윤남희
딸 이테레사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